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 달, 살 )
- 중성을 바꾼 경우( 볼, 불 )
- 종성을 바꾼 경우( 밥, 방 )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2. 아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학생: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위치 \ 조음 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

는 '입는[임는]', '뜯는[뜨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생: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3. 다음의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입술 모양 혀의 높이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반개모음)	ㅔ	ㅕ	ㅖ	ㅗ
저모음(개모음)	ㅙ		ㅛ	

<보기>

수정: 내가 잘 했어야 했는데.

민기: 뭐? 내가 잘 했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수정: 아니. 니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기: 아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네가 잘 했어야 했는데.'로 들었어. 그런데 '니가'는 잘못된 표현 아니야?

수정: 맞아. 그런데 '내'와 '네'가 혼동되니까 현실적으로 '니가'를 사용하기도 하지.

민기: 아, 그렇구나. '내'를 발음할 때는 ( ㉠ )

- ① '네'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구나.
- ② '네'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겠구나.
- ③ '네'보다 혀의 높이를 더 높아지게 해야겠구나.
- ④ '네'와 달리 혀의 최고점을 앞에 놓아야겠구나.
- ⑤ '네'와 달리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겠구나.



은 [잠는]으로 읽어야 한다.

- ③ ‘난로’를 [날로]로 발음하는 것은 (나)의 적용을 받은 결과이다.
- ④ (나)의 [붙임]을 고려하여, ‘감기를 앓는 동생’에서 ‘앓는’은 [알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물난리’가 [물랄리]로 발음되는 것은 (나)의 경우가 두 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8. <보기>의 음운 카드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① ‘ㄹ’, ‘ㄴ’, ‘ㄱ’을 차례로 사용하면 ‘먹’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군.
- ② ‘먹’의 가운데소리인 ‘ㄴ’ 대신 ‘ㄹ’을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가 되는군.
- ③ ‘목 : 곶’에서 보면 첫소리가 끝소리에, 끝소리가 첫소리에 쓰일 수 있군.
- ④ ‘먹 : 목’처럼 가운데소리는 첫소리의 오른쪽에 써야 하는군.
- ⑤ ‘목 / 먹 / 곶 / 검’처럼 음운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군.

9. <보기>에서 (ㄱ)과 (ㄴ)의 ‘음운 변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음운 변동의 예

술한 → [숀한] → [수탄]

(ㄱ)            (ㄴ)

- (ㄱ)    (ㄴ)
- ① 교체    축약
- ② 교체    첨가
- ③ 탈락    축약
- ④ 첨가    교체
- ⑤ 첨가    탈락

10. <보기>의 밑줄 친 ‘축약’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크- + -어서 → 커서
- ② 피- + -어서 → 퍼서
- ③ 오- + -아서 → 와서
- ④ 그리- + -어 → 그러
- ⑤ 맞추- + -어 → 맞춰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탈락에 대해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돌다’의 활용: ‘돌-’+‘-고’→돌고, ‘돌-’+‘-니’ → 도니 ……
- ㉡ ‘날다’의 활용: ‘날-’+‘-고’→날고, ‘날-’+‘-아’ → 날아 ……
- ㉢ ‘쓰다’의 활용: ‘쓰-’+‘-고’→쓰고, ‘쓰-’+‘-어’ → 써 ……
- ㉣ ‘가다’의 활용: ‘가-’+‘-고’→가고, ‘가-’+‘-아’ → 가 ……

- ① ㉠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② ㉡에서는 ‘날아’를 [나아]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군.
- ③ ㉢에서는 어간의 모음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④ ㉣에서는 어간의 모음과 동일 음운이 연결될 경우 한 음운이 탈락되는군.
- ⑤ ㉠~㉣를 보니,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의 탈락과 모음의 탈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12.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양상이 다른 것은?

<보기>

◦ 순행 동화 :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  
예) 칼날[칼랄], 강릉[강능]

◦ 역행 동화 :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  
예) 편리[펼리], 까막눈[까망눈]

- ① 종로    ② 작년    ③ 신라    ④ 밥물    ⑤ 국민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먹히다                      ② 발머리                      ③ 숨이불  
④ 좋으면                      ⑤ 한여름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며,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것이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것을 가리킨다.

- ① 한여름[한너름]  
② 막히면[마키면]  
③ 물난리[물랄리]  
④ 벗나무[번나무]  
⑤ 넣어서[너어서]

15.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화 현상은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동화에는 'ㄴ, ㄹ'의 앞에서 'ㄱ, ㄷ, ㅂ'이 'ㅇ, ㄴ, ㄹ'으로 변하는 비음화, 'ㄹ'의 앞뒤에서 'ㄴ'이 'ㄹ'로 변하는 유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있다.

- ① '밥물'은 [밤물]로 발음해야 한다.  
② '밭이'는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③ '난리'는 [난니]로 발음해야 한다.  
④ '땀받이'는 [땀바지]로 발음해야 한다.  
⑤ '먹는다'는 [멍는다]로 발음해야 한다.

16. <보기>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보기>

◦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뿐이다. 음절 끝에 이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 된소리되기 : 받침 'ㄱ(ㄲ, ㅋ, ㆁ, ㆁ), ㄷ(ㅌ, ㅊ, ㅈ, ㅊ), ㅂ(ㅃ,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국밥[국뺨]                      ② 달는[단는]  
③ 덮개[덥개]                      ④ 공권력[공뀐력]  
⑤ 붙이다[부치다]

17. <보기>의 음운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기>

'ㅎ'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한다. '낱으세요'를 [나으세요]로 발음하거나 '쌀이다'를 [싸이다]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 ① '하얏다'를 [하야타]라고 발음한다.  
② '줍히다'를 [조피다]라고 발음한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라고 발음한다.  
④ '그렇죠'를 [그러쵸]라고 발음한다.  
⑤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한다.

18. 다음 ㄱ~ㄹ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꽃[꼇], 앞[압]
- ㄴ. 맨입[맨닙], 담요[담 : 뇨]
- ㄷ. 안다[안 : 따], 탁구[탁꾸]
- ㄹ. 날다[나 : 타], 오+아서→와서[와서]

- ①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홀이불→[흔니불]’을 들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③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엎다→[업따]’를 들 수 있다.
- ④ ㄹ의 [나 : 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 ⑤ ㄹ의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아→집에 가[가]’를 들 수 있다.

19. <보기>에서 설명한 음운 현상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보기>

동화란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닮아 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다.

- ① ‘붙이다’는 왜 [부티다]가 아니라 [부치다]로 소리 날까?
- ② ‘집안일’은 왜 [지바닐]이 아니라 [지반닐]로 소리 날까?
- ③ ‘권력’은 왜 [권력]이 아니라 [퀄력]으로 소리 날까?
- ④ ‘먹는다’는 왜 [멍는다]로 소리 날까?
- ⑤ ‘굳이’는 왜 [구지]로 소리 날까?

20.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보기>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움겨서] 밥을 먹었다.
- ㉡ 그녀는 내 말을 굳이[구지]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임문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 ㉣ 나는 말을 더듬지[더듬찌]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 그는 듬직한[듬지칸]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굶기다, 급하다
- ② ㉡의 예: 미닫이, 뺨대다
- ③ ㉢의 예: 집문서, 만누이
- ④ ㉣의 예: 꺼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굽히다, 한여름

2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팽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녀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22.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빈], 앞→[압], 안팎→[안팍]
- ㉡ 약밥→[약뺨], 잡다→[잡따]
- ㉢ 놓지→[노치], 만형→[마형]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따뜨따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2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 아, 야, 와, 의)
-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 끼, 노, 며, 소)
-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 알, 억, 영, 완)
- ㄹ ‘초성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24.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옳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숯또], 웃고름 → [올꼬름]
- ㉣ 닳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값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얹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2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맑+네 → [망네]
- ㉡ 낮+일 → [난닐]
- ㉢ 꽃+말 → [꼐말]
- ㉣ 굵+고 → [글꼬]

- ① ㉠: ‘값+도→[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니→[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팔+죽→[판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읽+지→[일찌]’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답> ②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므로, 초성, 중성, 종성 중의 어디에 위치하든 그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꿈에 따라 그 음운이 포함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발’의 초성을 ‘ㄷ’이나 ‘ㅅ’으로 바꾸거나, ‘발’의 중성을 ‘ㄱ’나 ‘ㄷ’로 바꾸거나, ‘발’의 종성을 ‘ㅂ’이나 ‘ㅇ’으로 바꾸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비분절 음운인 음장(音長) 역시 그 길이의 길고 짧음을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다.

### 2. <답> ①

‘식물[싱물]’, ‘입는[임는]’, ‘뜯는[띯는]’에서는 각각 ‘ㄱ, ㅂ, ㄷ’이 ‘ㄹ, ㄴ, ㄷ’과 만나 각각 ‘ㅇ, ㄹ, ㄴ’으로 변한다.

① 제시된 자음 분류표를 살펴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뒤 자음인 ‘ㄹ, ㄴ, ㄷ’의 조음 방식은 모두 비음이다. 이들은 앞 음운의 발음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③ 두 자음이 만나 한 자음이 다른 자음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둘 중 하나의 자음만 조음 방식이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앞 자음인 ‘ㄱ, ㅂ, ㄷ’이 각각 ‘ㅇ, ㄹ, ㄴ’으로 바뀌었으나, 이는 조음 방식의 변화이지 조음 위치의 변화인 것은 아니다. ‘ㄱ’은 같은 조음 위치(연구개음)에 속하는 ‘ㅇ’으로, ‘ㅂ’은 같은 조음 위치(양순음)에 속하는 ‘ㄹ’으로, ‘ㄷ’은 같은 조음 위치(치조음)에 속하는 ‘ㄴ’으로 바뀌었다.

⑤ 뒤 자음인 ‘ㄹ, ㄴ, ㄷ’은 조음 방식과 조음 위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 3. <답> ①

단모음 체계 표 아래의 (보기)에는 ‘내’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ㄱ’은 저모음(개모음), ‘ㄴ’은 중모음(반개모음)으로 ‘ㄱ’은 ‘ㄴ’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 혀의 높이를 낮춰서 발음해야 한다.

② ‘ㄱ’과 ‘ㄴ’은 둘 다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동그렇게 오므려 발음할 필요가 없다.

③ ‘ㄱ’은 저모음(개모음)이고, ‘ㄴ’은 중모음(반개모음)이므로, ‘내’를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는 ‘네’를 발음할 때보다 낮게 해야 한다.

④ ‘ㄱ’나 ‘ㄴ’ 모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ㄴ’이 ‘ㄱ’보다 혀의 최고점이 높다.

⑤ ‘ㄱ’나 ‘ㄴ’의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로 혀를 이동시켜야 한다.

### 4. <답> ④

‘밖’은 [박]으로, ‘밑’은 [민]으로 발음되는데, 이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적절하다.

① 제시된 단어 중에서 ‘부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부억]으로 발음된다. 즉, ‘ㄱ’이 ‘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단어 중에서 ‘웃’은 [울], ‘빛’은 [빈]으로 발음된다. 즉 음절 끝 자음이 예사소리 ‘ㅅ, ㅈ’일 때도 바뀐다.

③ 제시된 단어 중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은 ‘부엌[부억], 웃[울], 빛[빈], 앞[압]’이다. 즉, 음운 변동이 일어나 ‘ㄱ, ㄷ, ㅂ’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된 단어를 모두 발음해 보면 [부억, 간, 울, 빈, 달, 섬, 압, 창]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ㄹ, ㄹ, ㅇ’이다.

### 5. <답> ②

㉠의 ‘흙까지[흑까지]’에서 ‘흙’이 [흑]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른 것인데, ‘값싸다’가 [갑싸다]로, ‘닭똥’이 [닥똥]으로 발음되는 것 역시 이 현상에 따른 결과이다.

① ㉡의 ‘바파고’가 [바파고]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 되기 때문의 것이다. ‘머키다’가 [머키다]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이지만, ‘목걸이’가 [목꺼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때문의 결과이다.

③ ㉢의 ‘잡교’가 [잡교]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때문의 것이다. ‘군세다’가 [군세다]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숨니불’이 [숨:니불]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에 따른 결과이다.

④ ㉣의 ‘든는다’가 [든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따른 것이다. ‘검내다’가 [검내다]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맨입’이 [맨닙]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에 따른 결과이다.

⑤ ㉤의 ‘칼날’이 [칼랄]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에 따른 것이다. ‘설날’이 [설:랄]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잡히다’가 [자피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의 결과이다.

### 6. <답> ②

### 7. <답> ④

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소리가 같은 계열로 동화되는 현상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나) 규칙을 적용하여 보면 ⑤의 ‘물난리’는 물+난리로서 먼저 ‘난리’가 [날리]로 발음되고, 그리고 ‘물’과 결합되어 [물랄리]로 발음이 된다. ④의 ‘알는’에서 ‘알’의 끝소리는 대표음인 ‘ㄹ’로 발음되어 ‘알’로 되고, ‘알+는’에서 (나)의 조건인 /ㄹ+ㄴ/은 /ㄹ+ㄹ/로 소리 나기 때문에 [알른]으로 발음해야 한다.

23. <답> ①

24. <답> ③

25. <답> ⑤

8. <답> ④

9. <답> ①

10. <답> ①

①은 축약이 아닌 탈락의 예이다.

11. <답> ②

12. <답> ①

13. <답> ①

‘먹히다’는 ‘ㄱ’과 ‘ㅎ’이 ‘ㅋ’로 축약되어 [머키다]로 발음된다.

14. <답> ①

‘한여름’은 ‘ㄴ’ 첨가의 예이다.

15. <답> ③

16. <답> ③

17. <답> ⑤

⑤는 자음 탈락(‘ㅎ’ 탈락)의 예이고, ①~④는 자음 축약의 예이다.

18. <답> ⑤

19. <답> ②

‘집안일’은 음운 동화가 아닌 음운 첨가의 예이다.

20. <답> ③

㉠은 자음군 단순화, ㉡은 구개음화, ㉢은 비음화, ㉣은 된소리되기, ㉤은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집문서와 만누이는 비음화로 인해 [짐문서], [만누이]로 발음된다.

21. <답> ④

22. <답> ③